



소비자지수 상승 및 소매판매 호조세 지속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10월 15일 미 상무부는 9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1.1%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였다고 밝힘.

- 상무부는 8월 소매판매 증가율을 1.2%로 수정·집계하였으며, 소매판매가 2개월 연속 1% 이상 증가한 것은 2010년 10월 이후 처음임.
- 부문별로는 애플의 아이폰 5 출시의 영향으로 가전제품이 4.5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휘발유도 유가 상승에 따라 2.5% 증가하였으며, 승용차 또한 1.3% 증가하였으나 백화점은 0.2% 감소함.
- RBC financial은 소매판매의 지속적인 증가로 3/4분기 민간소비는 2/4분기 1.5%보다 0.5%p 상승한 2.0%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라 당초 1.6% 수준으로 예상되던 3/4분기 GDP 성장률도 1.9%로 상향조정함.

■ 한편 10월 12일 톰슨 로이터/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10월 소비자심리지수가 2007년 9월 이후 최고수준인 83.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.

- 10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월의 78.3과 전문가들의 예측치인 78을 크게 웃돌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, 재정절벽 우려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나타난 것이어서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짐.
- 항목별로는 소비자 기대가 9월 73.5에서 79.5로 상승하였고 경제여건 지수는 85.7에서 88.6으로 상승함.
- 큰 폭의 소비자심리 개선은 주가와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8% 아래로 하락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연말 소매판매 전망을 밝게 함.

(Wall Street Journal 등, 10/15)